

From : mobifence01@mbifenc.com

To :

wyllee726@nri.kr, hmbok@mri.kr, parksssem@mri.kr, choice@nrc.co.kr, dorabono@nrc.co.kr, haneul96@gmail.com, ocj2123@nrc.co.kr, bozzang@nrc.co.kr, story567@nrc.co.kr, sdchaos@nrc.co.kr, boyondal@nrc.co.kr, yykim@mri.co.kr, smyoon@hankyung.com, taehun@hankyung.com, jan@hankyung.com, leeswoo@hankyung.com, dolph@hankyung.com, gyochu@hankyung.com, thkim@wowtv.co.kr, kaki1736@wowtv.co.kr, munsp33@wowtv.co.kr, osyoo@wowtv.co.kr, kbk9@hankyung.com, sesung@hankyung.com, hana@hankyung.com, derrida@sed.co.kr, hanul@sedaily.com, jiminj@sedaily.com, kbgo@sedaily.com, chopin@sedaily.com, sarak@sedaily.com, minguo@sedaily.com, jikim@sedaily.com, cafe9@nnews.com, elikim@nnews.com, ronia@nnews.com, joony@nnews.com, syj@nnews.com, app@nt.co.kr, saint@nt.co.kr, joon@nt.co.kr, hilee@nt.co.kr, sjw@nt.co.kr, dandi@nt.co.kr, jij@heraldm.com, yuni@heraldcorp.com, bonsang@heraldcorp.com, jaylee@siasae.co.kr, letrein@siasae.co.kr, ahn708@siasae.co.kr, jckim@ajunews.com, hanjh@ajunews.com, jms9@ajunews.com, kpen@ajunews.com, kona@ajunews.com, online13@edaily.co.kr, shower@edaily.co.kr, honnezo@edaily.co.kr, pinnster@edaily.co.kr, miyah31@edaily.co.kr, kys401@edaily.co.kr, jwlee@edaily.co.kr, aa@viva100.com, janus@viva100.com, ejele@viva100.com, sun@viva100.com, han005@viva100.com, yuni2514@netrosoul.co.kr, catchrod@netrosoul.co.kr, silkni@netrosoul.co.kr, jochoi@news.com, acebbu@nt.co.kr, peng@tdonga.com, ju@llyo.co.kr
Cc : 손경식 회장 <ssohn@cj.net>, 김광현 <kgw@cj.net>, 김흥민 <jyhm@cj.net>, 이종규님 <isj@cj.net>, 양경희 <yanggye@cj.net>, 이철우님 <icw@cj.net>, 김성민 <ksm@cj.net>, 이진우님 <ijw@cj.net>, 임국영님 <imk@cj.net>, 이서준님 <isj@cj.net>, 김성민 <ksm@cj.net>, 이진우님 <ijw@cj.net>, sr.ch@cj.net, chul@cj.net, jwlee@cj.net, jckim@cj.net, jms9@cj.net

Sent : 2018-10-18 09:48:11

Subject : CJ의 늦깎이 협상제안에 대한 모비프렌의 답변 과 과정 요약

안녕하세요?

모비프렌 허주원 대표입니다.

본 메일을 받으시는 기자님들의 메일 주소는 정치,경제,사회,문화,국제,스포츠등 인터넷에 기사를 하나라도 쓴 모든 기자의 메일 주소를 수집하라고 지시를 하여 얻은 공개된 메일 주소이며 약 1200분에게 전송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만큼 저희의 상황이 절박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방대하고 길지만, 끝까지 읽어 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아래내용 작성에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마지막 검토하는 현재시간이 9시 정각으로 1200여명에게 문자를 보내고 눈좀 붙이려 합니다.

국회에 8시 반까지 가서 1인 시위하는게 목표였는데 메일을 다 보내고 조금 쉬고 갈 예정입니다.

그 동안 저희를 철저히 무시를 하다가 이제사 CJ에서 협상제안이 들어와 제가 답변을 카톡으로 하였습니다.

저(허주원)는 CJ 갑질의 엄청난 피해자입니다.

계약 후 2 여년간을 대표이사인 저를 CJ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못하게 하더니,

청와대 국민청원에 "[CJ의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은 여전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무시하는 CJ의 甲질 문화를 고발합니다](#)"를 올렸다고 언론에 거짓정보를 주어 모비프렌이 역갑질을 한다고 도배를 하여 공격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매일 국회앞 1인 시위 저녁과 휴일은 CJ의 대응을 위한 자료작성과 지시, 밀린업무 처리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잠은 두 세시간만 자고 피곤하면 쪽잠을 자며 보내고 있습니다.

100여명의 직원들의 삶의 터전인 일터를 보전하기 위해서 입니다.

저희의 대부분의 직원들은 저와 십년이상을 동고동락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만 바라보며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CJ와 싸우기 위해서 지시하면 굶은 일

마다않고 도와 줍니다.

저희 직원들 앞에서는 당당한 척 곳곳한 척을 합니다. 약한 모습 보이면 직원들이 흔들릴까 염려가 됩니다.

너무 지치고 피곤하면 저 자신이 서러워 혼자서 자주 남몰래 눈물을 흘리지만 직원들에게는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한국아마존 도움으로 금년 10월에 저희가 직접 미국 아마존에 입점을 했습니다.

입점과 동시에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Asia Promotion Month에 저희 모비프렌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상품평이 많지는 않지만 모두 별 다섯을 받았습니다.

아래사이트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amazon.com/s/ref=nb_sb_noss_1?url=search-alias%3Daps&field-keyword=s=mobifren

정말 힘든싸움입니다.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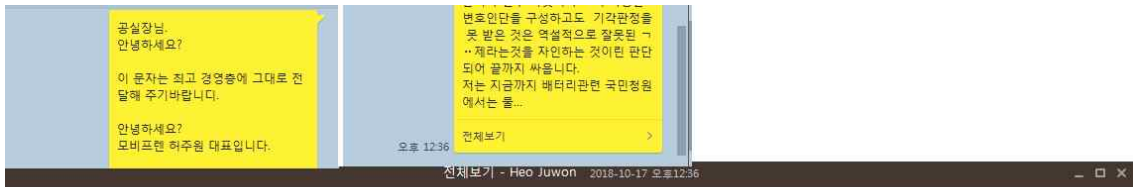
이미 각오도 했고 매일 각오를 다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룹회장이 국감장에 선 다는데, 돈많고 조직 튼튼한 CJ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대한 권력과 금력의 힘 앞에 두려움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매일 마음을 다잡고 앞장서서 **CJ 이재현 회장을 국감장 증언대에 세우기 위해** 국회정문으로 아침에 출근을 하고 저녁 7시 30분 경에 퇴근을 합니다.

CJ에서 협상제안이 들어와 제가 보낸 카톡 답변



공실장님,
안녕하세요?

이 문자는 최고 경영층에 그대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모비프렌 허주원 대표입니다.

제가 가장 싫어 하는 것이 거짓말이고 그런 사람은 경멸하고 인연을 끊고 살아왔습니다.
국가가 출판진흥원이 발도안되는 소용항배터리 인종이라는 규제 만들어 인종업체에게는 수익창출을 스타트업 기업가들의 사업의욕을 꺾는 정말 못된 규제를 만든 것을 보고 3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소송까지 진행을 했는데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부장판사 출신의 2명의 총 3명의 변호사를 선임하고도 관계자 지분 포함 시 80퍼센트 이상을 가지고 있는 모비프렌 대표인 자가 이해당사자가 아니라고 즉 청구권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 각하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국표원의 논리가 전부 거짓이다 보니 막강한 변호인단을 구성하고도 기각판정을 못 받은 것은 역설적으로 잘못된 거... 재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면 판단되어 끝까지 싸웁니다.
저는 지금까지 배터리관련 국민청원에서는 물론 국표원의 거짓 주장에 대한 댓글에도 실명과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이번에 국감가러다가 귀서(CJ)건 때문에 내년으로 미루었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가 대학창업보육센터에서 직원 환영을 데리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었다면 간과했을 잘못된 규제에도 정부산하기관과 방세원 자로준비하며 싸웠는데(자로만 드까운 책한장 부량이 넘습니다).
지금 귀사의 건은 직원 배여명의 일타가 없어지고, 이재현회장님께 보낸 내용증명에 저를 피상해서리도 회사를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저와 저희 가족은 불행해 질 것이지만 CJ그룹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재현 회장님께 보고 누락이 될까봐 손경식 회장님, 김흥기 부사장님 공동대표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것도 불안하여 사이버 제보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 내용증명에 포함되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을뿐입니다.
제가 가장 분노하고 용서 못하는 것이 생명의 문제에 까지 무감각한 것입니다.
아래링크 클릭해 보세요

<https://goo.gl/Z2QA9H>

게다가 저희를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하기 위해 언론에 거짓말은 물론 해괴망측한 논리로 국민을 상대로 기만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는데 이제 와서 무슨 합상을 원한다는 것입니까?
집권여당 민주당 대구 북을 홍의락 의원을 만나기 바로 직전에 저와 잠시 일하다 떠난 정호상 전무한테 이런 조건의 제안이 온다면 받아 들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카톡 문자를 보냈다가 홍의원 만나고 나오면서 내가 아침에 보낸 문자 취소한다고 바로 문자 날렸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에서 고소장 제출 거부를 보고 이재현회장님을 국감장 증인채택외에는 어떤 것도 거부하는 것으로 제 각오를 다졌습니다.
지금온 저희는 저희의 방법으로 싸웁니다. 카톡 매일 커뮤니티 활동등을 활용합니다.
저희 전 직원에게는 휴일이든 밤이든 대기하고 있고 지시내리면 바로 이행하라고 했습니다.
지시 따르든지 따르지 하라고 했습니다.
이재부로 지시 따르지 않은 직원 환영 내 보냈습니다.
대신 회사가 정상적인 수익을 내면 중동업계 최고의 임금과 복지를 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이상 공중은 실감을 통해 연락하지 말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모비프렌 대표이사 허주원 배상

저희 전 직원이 카톡으로 자기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카톡친구 전원에게 아래의 내용을 복사하여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시간 이내 5만명 이상에게 전송이 됩니다.

아래는 카톡으로 보내는 내용입니다.

"아래 흰바탕의 "CJ최고 경영층에 보내는 내용"을 터치하면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goo.gl/L94AKt> 링크 입니다.

위의 내용은...

CJ에서는 그동안 수많은 호소를 무시를 했습니다. 하소연 할 곳이 없어 청와대 국민청원에 CJ갑질을 모비프렌 대표가 글을 올리니 하지도 않은 막무가네식 계약연장을 요구하다 받아들여 지지 않자 역갑질을 한다고 언론에 도배를 했습니다.

뿐만아니라 모비프렌 대표에게는 연락조차 없이 여당 산자위 간사 홍의락 의원으로 하여금 CJ대변인을 자임하게 만들어 CJ 이재현 회장 국감증인 채택에 극렬히 반대를 하게하여 1차 증인채택을 무산시켰습니다. 또한 CJ와 홍의락 의원에게 불리한 기사를 내리는 짓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죄로 이재현 회장과 CJ ENM 대표 허민

회를 피고소인으로 고소장 작성이 완료되어 오전에 컨펌을 하였는데 결재과정에 "법무법인 바른" 대표가 이재현 회장이 피고소인으로 적시가 되었다는 이유로 결재를 하지 않고 오후에 수임해지통보를 문자로 보내 왔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CJ와 소송을 할수 있는 유일한 법무법인이라고 자랑을 하고 공정위 고소도 함께 진행하자고 제안을 하여 그 자리에서 1700만원으로 공정위 소송 구두승인 후 계약서를 받아 모비프렌에서는 날인이 완료된 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동안 철저히 무시를 하다 이제와서 협상에 응해달라는 전화 요청에 대한 답변입니다.(메일로도 왔음)

모비프렌은 이대로 가면 CJ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어차피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직원들의 마음을 모아 싸워도 모자랄 판입니다.

회사대표가 온종일 10시간에서 11시간씩 3주째 국회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밤잠을 안자고 자료작성과 호소문 작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비상시국에 뒷다리를 잡는 직원은 전체 임직원의 일터를 지키는데 방해가 될 거라는 판단으로 지시에 따라주든지 다른 직원들의 안정된 일터보전을 위해 회사를 떠나라든지 양자택일을 하라고 지시했고 거기에 따라주지 않는 직원한명을 엄청 나무랐드니 본인이 사표를 내고 어제(10월 16일) 떠났습니다.

이부분은 오해가 있을거 같아 언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를 매일 카톡과 메일로 지인들에게 전송을 합니다.

이미 수 차례 발송이 되었습니다.

각종 커뮤니티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모비프렌 홈페이지에는 CJ의 갑질에 대한 명백한 증거자료와 CJ가 모비프렌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자료로 메인 페이지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www.mobifren.com

읽는데만 몇 시간씩 걸립니다.

거의 모든 자료를 전자공학을 전공한 공학도인 제가, 삼성 개발실에서 약 14년을 근무하고 아직도 엔지니어의 길을 걷고 있는 제가 밤세워 준비한 자료들입니다.

이보다 더 많은 자료가 제 컴퓨터와 메일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CJ갑질과 홍의락 의원이 국감 증인 채택에 반대하고 있다는 내용의 전단지 60만장을 서울 전역 지하철 역에서 배포했습니다.

국회출입문에서 7천장을 배포를 했으며, 저 혼자서 단 하루에 1천장을 국회정문으로 출입하시는 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대구에는 5만장을 배포했습니다. 대구 북을 홍의락 의원사무실 주위에 2만장, 대구의 제일 변화가인 동성로에서 3만장을 뿌렸습니다.

저희 모비프렌 본사가 있는 구미읍 지역구 의원인 장석춘 의원이 증인신청을 하겠다고 하면서 3당 합의가 되어야 증인 채택이 된다고 하여,

9월 29일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홍의락 의원실을 찾아갔습니다.

홍의락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갔다가 CJ의 말을 대변하는 홍의락 의원의 말에 분노하여 대화 중간에 녹음을 했습니다.

모비프홈페이지에는 홍의원과 대화 녹음 파일이 저의 폭우속 시위사진과 함께 영상으로 제작되어 1탄 2탄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10월 20일 자정에는 10분짜리 녹취영상이 공개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홍의원 실에는 메일로 녹음 파일도 보내주고, 비공개 녹취파일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새벽에 홍의원실 비서관에게 보냈습니다.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폭우속 10시간 연속 시위사진 풍경사진을 담아 녹취공개를 예정된 시간에 했습니다.

10월 10일을 D-day로 하여 홍의원 사무실에서 저를 희생을 하여 경종을 울리겠다고 홍의원 실에도 알리고 국회앞 1인 시위에서 공연도 했습니다.

이제현 회장이 국감장 증인 채택이 무산되면 CJ ENM PD(故 이한빛)의 길을 선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8일 오전에 홍의락 의원과의 녹취파일을 들었다는 기사가 신화일보에 올라왔다가 오후에 지워지는 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슈화도 못되고 묻혀, 저와 제 가족만이 불행하게 되고 회사를 지키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 판단을 했습니다.

금력과 권력의 힘이 정말 대단함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마음을 바꾸어 새로운 길을 찾아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고 그것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인 지금 이시간 까지 메일을 정리하여 기자님들에게 보내는 이유도 목숨이 더 소중한을 알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9/28일 10/1일 2일 5일 8일 10일 11일 12일은 아침 점심 굶고 저녁한끼만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만 제외하고 줄 곧 서 있었습니다.

10/5일은 종일 비가 내려 속옷까지 몽땅 젖었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었지만 더욱 의지를 불태우며 8시 반부터 저녁 6시 반까지 10시간 연속시위를 했습니다.

삼성동 서울 사무소로 이동하면서 우중사진을 넣은 전단지 제작을 직원들에게 지시를 하며 스마트폰으로 컨펌을 한 후 전단지 인쇄가 나오는 동안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코엑스 삼성역 출입구로 이동하여 저는 1인 시위 직원들은 가져간 전단지를 모두 돌리니 10시 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일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싸우려는 투지가 생깁니다.

1인 시위도 이왕 할거 즐기면서 하고 있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웃으며 출입하는 분들과 인사를 건넵니다.

무표정한 경비경찰 분들을 찾아가 인사를 나누고 말을 걸기도 합니다.

CJ의 갑질과 왜 홍의락 의원이 반대하는지 특히나 집권 여당 의원이 반대하면 되냐고 강변도 해 봅니다.

그러나 공무원 신분, 군인신분이기에 말로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눈빛으로 화답해 줍니다. 참 감사합니다.

아래는 제가 10월 8일 홍의락 의원님 실에 보낸 메일입니다.

제 아내가 이 내용을 보고 눈물을 엄청 흘렸습니다. 지금도 이 글을 읽으니 저도 눈물이 납니다.

모비프렌 홈페이지를 통해 아래와 같이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홍의락 의원님께 보낸 메일 \(제 아내가 이 내용을 보고 눈물을 엄청 흘렸습니다.\)](https://drive.google.com/file/d/1xzeo6rO8hYgSVtwlndgb1-g9LDfXNV9E/view)

<https://drive.google.com/file/d/1xzeo6rO8hYgSVtwlndgb1-g9LDfXNV9E/view>

시간 나시면 아래의 링크도 클릭해서 들어가 보세요.

[집권여당 홍의원님께 보낸 제안 \(홍의락 의원은 이 제안을 왜 받아 들이지 않았을까?\)](https://drive.google.com/file/d/1v6P85MIFdbg1IXUx-7vCG5POwjSgoqcN/view)

<https://drive.google.com/file/d/1v6P85MIFdbg1IXUx-7vCG5POwjSgoqcN/view>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아래의 일도 벌어졌습니다.

CJ의 허무맹랑한 역갑질 주장이 언론에 도배가 되는 것을 보고 저희도 보도대행사를 통해 보도자료배포와 언론대응을 하기로 하고,

HK 미디어웍스(대표 배정국/방성식)와 계약을 했습니다.

착수금 2,000만에 월 500만원 연말까지 **총 3,500만원**으로 계약체결을 하고 착수금 **2,000만원**은 송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식보도자료 배포 한번(이전까지는 두번으로 알고 있었음)에 마이너 신문 4곳에만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리고는 CJ가 광고로 신문사를 회유해서 그렇다는 변명이 그럴듯 하게 느껴졌습니다.

홍보대행사 **HK 미디어웍스(대표 배정국/방성식)**와의 대외 창구를 맡았던 임시직 책임자는 3,500만원은 짠 금액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임시직 책임자가 떠나고 나서는 홍보대행사를 쓰는데 왜 착수금이 2000만원이나 필요했는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바른도 계약금은 600만원만 지불을 했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계약서 초안도 보여주지 않았으며, 최종 계약서는 경영지원실장에게만 메일로 보내고 대표이사인 저는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어제 CJ이재현 회장 고소를 위해 법무법인에 보여줄 자료를 있을거로 생각을 하여 메일 확인을 하니 제 메일로 들어온 자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떠나면서 남긴 자료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월 100만원 한도로 업무상 사용하라고 준 **법인카드**와 "법무법인 바른"의 **계약서원본**만 두고 떠났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의 대외 업무책임도 맡겼었습니다.

떠난 이유 또한 석연찮습니다.

10월 8일 오전에 "법무법인 바른"의 담당변호사가 피고인을 누구로 할 거냐고 물어와서 CJ이재현 회장은 무조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께서 이재현 을 피고소인에 넣을 시 무혐의 처분이 될 수 있고 특히나 무고로 피소를 당할 수도 있다고 해서

그러면 피소를 당해도 좋고 구속시키면 구속을 당하겠다고 해서 피고소인으로 이재현 허민회로 확정을 했었습니다.

변호사와 통화 후 임시직 책임자에게 "법무법인 바른"의 담당변호사의 말을 전달을 했더니 "이재현 회장이 언론 개입을 한 결정적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염려 말아라" 서울 오면 보여주겠다. 고 자신있게 주장을 하더니 지금은 그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회사업무를 하면서 얻은 모든 정보와 자료는 개인의 것이 아닌 회사의 자산으로 회사를 떠날 때는 반드시 회사에 귀속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떠나면서 자료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니다.

저희 직원에게 다음 대응을 위해 자료를 챙겨보라고 해서 저희 서이사가 전화를 하니 자료가 전혀 없다고 해서, 저희 사업총괄을 맡고 있는 정부사장이 전화를 하고 제가 전화를 하니(정부사장이 전화를 했는지는 몰랐습니다) 대뜸 니가 나한테 전화를 다 하나 하면서 화를 내며 막막을 하면서 횡설수설 하며 결정적 증거자료는 배사장(HK미디어웍스 모비프렌 창구 담당 사장님)이 모든 자료를 갖고 있다. 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사장께는 "배사장이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다" 는 녹음파일만 보내주었으며,

배사장, 저희 임시직 직원에게 이재현 회장이 언론에 개입한 자료와 홍보관련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으며, 그걸 보내 주지 않으면 "법무법인 바른"과 같이 유명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문자를 두사람에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배사장은 카톡도 차단을 하고 전화도 안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사장을 소개시켜준 지인을 통해 연락을 해 보라고 했지만 자기도 연락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임시직 직원에게 보낸 전체 녹음 파일(횡설수설하는)에 결적인 자료는 없다는 문구가 있음을 알고는 공갈협박으로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메일이 왔습니다.

제목만 보고 내용은 보지 않았습니니다.

법인이야 언론에 공개되어도 개인의 명예는 피해가 가지를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개인은 다르다고 문자도 주며 기다려 주었는데 오히려 법적대응하겠다는 메일을 받았기에 약속했던 "HK미디어웍스"를 공개합니다.

어떻게 착수금 2,000만원을 받고 월 500만원짜리 홍보 계약을 했는데, 보도자료 한번 밖에 내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홍의락 의원 대화녹음 파일중 일부를 들려줄테니 국회앞으로 어떤 기자라도 좋으니 한 두명만 보내달로 했는데 그것도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니다.

(신아일보 기자는 다른분이 소개를 한 거 같습니다)

낮에는 국회앞 1인시위, 밤에는 CJ대응 자료 만드느라 주말과 공휴일은 회사의 중요업무 처리로 정신없이 보냈는데 임시직 책임자가 떠나면서 한 말 때문에 그간의 상황을 스크린 해 보니 이상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2018년 10 월18일

모비프렌 대표이사 허주원 배상

아래는 법무법인 바른에 언론에 나온 CJ 주장에 대한 모비프렌의 반박과 증거자료를 18년 10월 5일 02시 51분에 보내고,

07시 22분에 홍의락 의원 비서관, 비서, 장석춘 의원께 보낸후 국회로 이동하여 08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폭우속 10시간 1인 시위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폭우속 1인 시위 사진을 넣은 전단지 제작요청 과 컨펌 후 코엑스로 이동하여 전단지 배포와 1인 시위를 22시 30분까지 하였습니다.

그만큼 저희의 사정이 절박한 것에 대한 입증입니다.

저의 희생이 불가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눈물로 쓴 메일입니다.

[FW]Cj주장 및 모비프렌 반박 자료와 증거 자료(변호사 제출용)

18.10.05 07:22:26 [GMT +09:00 (서울, 도쿄)]

보낸사람 : jwheo@mobifren.com

받는사람 : <didimimi22@naver.com>,caesar1105@naver.com,<jsc5708@hanmail.net>, [redacted] 장의원보좌관 <lgbakgom@naver.com>,
<[redacted]@mobifren.com>

어제 CJ 주장의 반박자료와 증거자료를 정리하면서 참 힘들게 2년여를 보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청 방대한 자료의 작성이 대부분 새벽이 많이 보내졌음도 알았습니다.

금년 3월 4월, 온라인을 우리가 가져오고 난 다음부터는 CJ의 비협조가 두드러져 보였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지 않으면 해서는 안될.....

중간 중간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내가 정리하는 마지막 자료가 될 거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CJ때문에 글쓰는 솜씨와 자료작성도엄청 잘 하게 되었다는 슬픈 생각도 들었습니다.

새벽기도 참석을 우귀해 새벽에 일어나 교회로 향하는 기리에 하늘은 흐리지만 참 상쾌한 공기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나옴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풍경을 볼 수 있는 날이 얼마남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교회에 도착해서도 계속 눈물이 나왔습니다.

찬송가는 차마 따라 부릴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형통하게 하시네"

지금도 눈물이 나네요.

어제 아침에 걱정하는 아내에게 이재현 회장 반드시 국감 증언대에 설거라고 호언장담하며
그러면 방탄소년단 같은 세계적인 유명 연예인도 우리 모델로 이재현 회장이 약속할 수 밖에
없을 거다.

그러면 내 꿈이 이뤄질거다.

이게 잘 정리되면 내년에는 당신 회갑이고 하니 1월이나 2월에 약 20일에서 30일간 해외 여
행을 멋지게 가지고 하면서 위로를 했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발게 바뀌는 걸 보았습니다. 마음 고생 그동안 많이 하게해서 미안하다는 생각
이 들었습니다.

어제 자료정리를 하면서

해당 의견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 Cj 측에서 허위보도를 인정 함 -> 위클리오늘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68257> 를

클릭하니 기사가 삭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이재현 회장을 반드시 국감장에 세워야지 그외에 어떤 거도 받아들일 수 없
다고 더욱 다짐을 했습니다.

홍의락 의원님 김 비서관에게 보낸 문자에서 처럼 "이재현 회장을 국감장 증인 채택을 하든
지, 나의 목숨과 홍의락의 정치생명을 선택하든지 밖에 없습니다."라고 한 것처럼 이재현 회장
은 반드시 국감장 증언대에 세워야 겠다는 확고한 결단도 하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정말 피하고 싶었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 정말 떨리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고 있어 저도 어쩔수
가 없습니다.

단지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지만,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는 오래전 부터 했습니다.

아내의 얼굴과 딸들의 얼굴, 그리고 저를 믿고 따라준 직원들의 모습이 떠 올랐습니다.

그래서, 홍의락 의원이 저의 제안을 받아들여 준다면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고 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홍의락이 저의 제안을 거절하고 받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홍의원님의 운명이고 저
는 저의 운명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변호사 제출용 자료를 위의 수신자들에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돌아는 길에는 눈물이 멈췄습니다.

홍의원님께 대한 미움도 없어 졌습니다.

어제는 그렇게 홍의원님을 원망하며 메일과 문자를 보냈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 뜻이고 어떤 결과가 오던 홍의원님도 용서를 할 거 같습니다.

존경하는 장석춘 의원님,

저는 장의원님을 만난 것이 제게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힘과 의지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재현 회장을 국감장 증인 신청과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씀에

제가 어제 "장의원님만 포기하지 않으면 홍의원은 제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증인채택을 반대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기쁩습니다.

장의원님, 항상 지금까지와 같이 불의에 맞서는 훌륭한 의원이 되어 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전무,

지금의 이 메일은 정 전무께만 보냅니다.

직원들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마세요. 걱정을 하니까요.

일이 잘 풀리면 공개하지 마시고 잘 안 풀리면 공개 하세요. 직원들에게 믿어 주고 따라줘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정날 좋은 회사를 만들고 싶었고, 그대는 잘 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신 명예훼손 고발은 오늘 중 고소장 접수되게 해 주세요. 공정위 고발도 변호사님께 특별히 부탁하여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해 달라고 해 주세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해 주어서 고마워요.

이 메일을 작성하면서 눈물이 자꾸 나지만, 이제는 깨끗하고 당당하게 오늘 하루를 시작 하렵니다.

남이사가 사무실로 왔네요.

눈물 보이면 안되는데.....

슬픈 모습 눈물 흘린 모습은 보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는 모든 거 내려 놓고 하나님 뜻에 맡기렵니다.

나의 목숨은 내게 있는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게 슬프지만, 미움이 없어서 참 감사하네요.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비프렌 대표이사 허주원 드림.

허주원/대표이사

(주)모비프렌

경북 구미시 인동52길 88

Korea 730-300

Mobile : 010-7352-5270

Tel : 054-474-2220

Fax : 054-474-2251

E-Mail : jwheo@mobifren.com

Website : www.mobifren.com

Juwon Heo / CEO

MobiFren Co.,Ltd

88, Indong52gil, Gumi, Gyeongbuk,

Mobile :+82 10 7352 5270

Tel : +82 54 474 2220 (ext.400)

Fax : +82 54 474 2251

Email : jwheo@mobifren.com

Website : www.mobifren.com

경북 구미시 인동52길 88
Korea 730-300

88, Indong52gil, Gumi, Gyeongbuk,